

부산체육 토크

JANUARY 2022 VOL.23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광역시체육회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CONTENTS



신년사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 중점 추진사업



부산스포츠 히어로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

유일한 금지로 명예를 지키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강서구체육회

구민들과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 건강한 100세 시대로의 길을 열다



이슈 앤 포커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외교적 보이콧 딛고 성공적 개최로

2022



壬寅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부산체육

존경하는 부산체육 가족 및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부산체육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지만 성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훈련에 매진하신 만큼 올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여 마음껏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도 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의지와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2년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계획과 체육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튼튼한 체육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정책 목표로 4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체육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체육 시스템 강화 선수환 프로세스 마련 및 온택트 스포츠 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를 통해 우리 체육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체육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체육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 중점 추진사업

희망을 향한 힘찬 날갯짓
2022년에도 체육인을 응원합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수많은 스포츠 행사가 취소됐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국체육대회는 고등부만 일부 개최됐으며 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오랜 시간 땀 흘려 준비한 체육인들은 그간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2년에도 체육인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목표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부산

추진전략

- 자생력 확보와 체육회 위상 정립
-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
- 국제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중점 추진 과제

자생력 확보와 체육회 위상 정립

- 0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 02 스포츠인권 강화
- 03 회원단체 역량 강화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01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02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 03 종합체육대회 참가 및 지역체육 활성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

- 01 생애주기 체육활동 지원
- 02 맞춤형 스포츠복지 서비스 활성화
- 03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체계 강화

국제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 01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
- 02 스포츠 교류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 03 부산체육 홍보 활성화

부산스포츠 히어로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



유일한 금지로 명예를 지키다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는 1966년 창단해 지금까지 농구명문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오랜 세월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저희 농구부는 부산에서 유일한 여자고등학교 농구부입니다. 그 만큼 자부심도 있지만 다른 팀들과 연습 경기를 많이 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타 시도 전지훈련을 통해 보완하고 있고, 팀워크를 강조하며 경기력을 높이고 있어요.”





구영순 교장 선생님의 바람!

동주여자고등학교는 꿈과 역량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육성이 교육 목표입니다. 오랜 전통의 농구부는 학교의 자랑이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노력하는 농구부 선수들의 모습은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농구부 선수들의 노력과 땀이 빛을 발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농구를 이끄는 동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감독과 코치의 지도 방식은 성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한 농구부를 만들었다.

“최근만 해도 2022년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신입 선발회에서 3명의 선수가 입단하는 성과를 냈어요. 지금처럼 연습은 시합같이, 시합은 연습같이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의 노력이 결실로 빛어지고 부산체육과 여자농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염원한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강서구체육회



구민들과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 건강한 100세 시대로의 길을 열다

활기찬 스포츠 문화 정착과 체육동호인 활성화, 선진체육회로의 도약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영위'라는 슬로건으로 15만여 명에 이르는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강서구체육회는 28개 종목 단체(정회원 20종목, 준회원 5종목, 인정단체 3종목)로 구성되어 있으며 184개 클럽에서 6천여 명의 구민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재업 회장의 각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임원진, 지도자와 봉사정신으로 힘을 합쳐 내실 있는 강서구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체력증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확장시키고 진취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육 동호인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더 많은 사회적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생활밀착형 체육으로 구민 모두가 100세 시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크골프, 축구, 생활체조 분야는 부산 및 전국의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는 강서구체육회의 주력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생활체조는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부산광역시 대표팀으로서 ‘부산광역시-일본 사가현 생활체조 국제교류 대회’에 참가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강서구체육회 하면 우수한 야외 프로그램들도 빼놓을 수 없다. 강서낙동강변30리 벚꽃축제 프로그램과 7천여 명의 경로당 회원이 참여하는 노인운동회 등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행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의 자연과 어우러진 대저수문생태공원의 그라운드골프 수업, 명지75광장의 게이트볼 수업, 강동야외체육 시설의 걷기 수업, 명지다목적운동장의 국학기공 수업, 명지강변산책로의 생활체조 수업, 명지 풋살장의 여성풋살교실도 인기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외교적 보이콧 딛고 성공적 개최로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경기대회 이후 중국에서 14년 만에 국제대회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린다. 이로써 베이징은 하계 및 동계올림픽경기대회를 모두 개최한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 일정은 2022년 2월 4일(금)부터 2월 20일(일)까지로 확정되었고 종목 또한 15개 종목, 109개의 세부종목으로 결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최지는 3개의 지구로 베이징, 옌칭, 장자커우이며 베이징은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빙상 종목의 무대가 된다. 대회의 막이 오르기도 전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는 잇따르는 '외교적 보이콧'으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함께하는 미래라는 공식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선수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길 기원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